

소상공인이 21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법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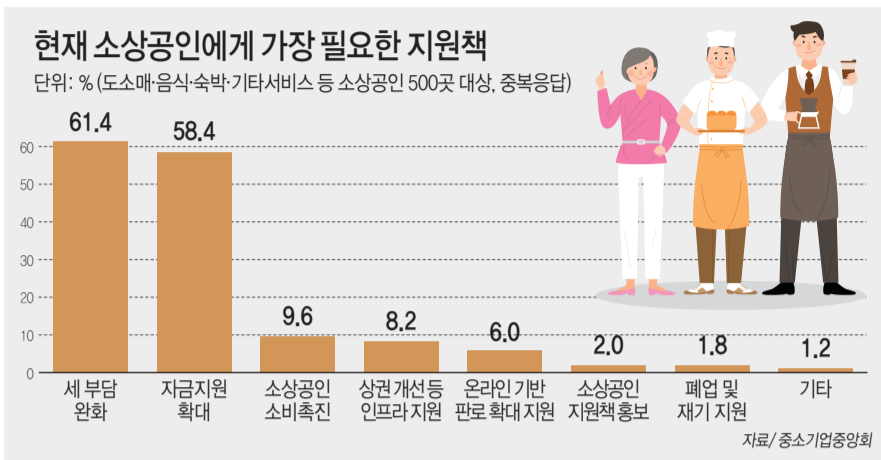
10곳 중 4곳 “상가 임대료 부담 좀 덜어주세요”

중기중앙회 코로나19 관련 정책 조사
골목상권·중소 보호법안 뒤이어
가장 필요한 지원 ‘세금부담 완화’
60% “정부 지원사업 활용 안해”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기대

소상공인들은 오는 6월부터 개원할 21대 국회가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관련 법안’ (43%)과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법안’ (41.4%)을 가장 먼저 통과시키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금 부담 완화’ (61.4%), ‘자금 지원 확대’ (58.4%) 등을 꼽았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있는 것



을 잘 몰라서’ 을 들어 10곳 중 6곳이 정부의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결과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 등 소상공인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

한 ‘코로나19 관련 정책 과제’ 조사에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은 차기 국회가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법안 외에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35%),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보완’(28.2%) 등을 위한 법안도 통과되길 함께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방향으로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소비촉진 지원책 확대’ (43.4%), ‘세금 투입을 통한 한계기업 지원 확대’ (35.3%),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진출을 제한하는 규제 및 감독 강화’ (9.2%) 등이 주를 이뤘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는 ‘대출·보증지원 확대’ (40%), ‘임대료 인하시 세액공제’ (23.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확대’ (14.4%) 등을 꼽았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은 ▲이차보전 대출 ▲초저금리 대출 ▲직접 대출 등의 코로나19 대책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응답자의 92.3%가 활용한 정부 지원책이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반면 응답자 가운데 올해 들어서 소상공인 지원책을 ‘활용한 경험이 없다’는 답변이 61.4%에 달한 가운데 44.3%가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은 자금난 해소, 소비 촉진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상황 변화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기중앙회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 살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위기 극복 소상공인 찾아요” 홈앤쇼핑, 중소기업에 해외홈쇼핑 판로 지원

중기벤처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 접수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기여 등 평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기진작과 성과확산을 위해 모범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에 대한 포상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포상분야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에서도 역경을 극복해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애쓴 모범 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지원 우수단체로 총 3개 분야다.

모범소상공인의 경우 업력 3년 이상으로 기술·메뉴·서비스·브랜드개발 등의 경영혁신으로 공적이 탁월하고 다른 소상공인에게 모범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김승호 기자

특히 올해는 제로페이 활성화,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비대면 기술 적용 확대 등 코로나19 극복 및 내수활성화에 기여 정도를 평가 과정에서 감안할 계획이다.

포상 훈격은 산업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장표창, 특허청장표창 등으로 총 150점 내외로 예정돼 있다.

올해 포상규모는 9월 중에 확정되며 포상자는 10월 말에 개최될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수여한다.

포상 신청서류 및 소상공인대회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산·학·연 힘 모아 핵심소재 국산화

과기정통부 융합연구단 출범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 연구단 선정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주력 산업 분야의 핵심소재 공급안정화에 필수적인 독자기술 확보를 위해 9개 산·학·연 드림팀이 본격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 수행과제와 기관을 확정하고 11개 공공(연), 35개 대학, 40개 기업이 참여하는 9개 산학연 융합 연구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부 차원의 기술 확보가 시급한 100대 핵심품목의 기술자립을 목표로, 개별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을 토대로 품목의 성능 구현·고도화에 필수적이면서도 다수 품목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향후 5년간 총 2066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핵심기술 융합을 통해 소재 설계·구현, 개발된 소재의 부품화를 위한 공정 확보, 시스템 구현 및 검증으로 이어지는 소재·공정·시스템을 패키지로 지원해 기술 완성도를 높게 된다. 또 개발된 기술은 사업기간 내 관련 기업에 대형 기술 이전을 완료, 연구단별 10억원 이상 기술료를 확보함으로써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공급망 구축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의 연구단은 100대 핵심품목 분야에서 기초연구와 개발연구간 가교역할이 가능하면서도 기술개발 역량과 실증 인프라를 보유한 공공연구기관을 총괄기관으로 정책지정하고 지정기관 중심으로 수요·공급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

홈앤쇼핑이 중소기업 상품의 해외판로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홈앤쇼핑은 해외홈쇼핑을 통한 중소기업 상품 해외 판로개척에 나섰다 17일 밝혔다.

홈앤쇼핑은 지난 2019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되며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홈쇼핑 판로개척을 돕고 있다.

같은해 4월부터 진행된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대만의 대표적 홈쇼핑 기업인 모모홈쇼핑에서 총 10개 중소기업의 상품을 선보였다.

런칭 상품들은 ▲아가타 백팩(유엔에프) ▲위터팩 클렌저(보크레머천다

/김승호 기자



‘너는특별하단다’ 유한킴벌리 기저귀 나눔 캠페인

유한킴벌리 기저귀 12.8만패드 나눔 캠페인 성료

유한킴벌리는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진행한 캠페인 ‘너는 특별하단다’ 캠페인이 마무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아 가정에 기저귀를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다.

유한킴벌리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기저귀에서는 이 캠페인을 위해 기저귀 2000박스, 총 12만8000패드를 제공했다. 기저귀는 공모사업 파트너 단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긴급 지원된다.

유한킴벌리 하기스는 지난 2012년부터

이징) ▲제니하우스 헤어쿠션(리엠에스컴퍼니) 등 홈앤쇼핑을 통해 국내에서도 상품력을 인정받은 상품들로 일부 상품은 모모홈쇼핑 방송 이후 재수출되는 등 대만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은 수출 중소기업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 해외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상품을 선별한 뒤 해당 중소기업 상품을 홈앤쇼핑이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은 재고, 배송, 통관 관리, 상품정보 등록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김승호 기자

새로 나온 책

혐오와 차별 대신 관용을

편견 고든 올포트 지음/석기용 옮김/교양인

“그 동네에 가봤어요? 더럽고 위험해서 밤에 거리를 나다니 수가 없단니까.”, “저들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남의 나라에서 끼리끼리 뭉쳐 살면서 이기적으로 구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참혹하게 린치를 당하는 ‘그들’은 누구일까. 부정적 이미지에 갇혀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그들’의 자리엔 나치 독일의 유대인, 미국의 흑인, 일제강점기의 재일 조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놓여 있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선 중국 동포, 난민, 성소수자, 여성이 ‘그들’로 불린다. 인류 역사상 편견이 없는 시대는 없었다. 그러나 편견을 타고나는 사람은 없다. 개인의 존엄을 부인하고 사람들 사이의 단합을 깨는 편견은 사회에서 습득된다. 편견은 잘못된 일반화에 근거해 어떤 집단과 그 구성원에 지니는 적대적 태도와 감정을 의미한다. 타자에 대한 적개심은 인간의 본성일까. 우리는 왜 쉽게 편견에 빠지는 걸까.

잘못된 일반화(범주)는 불가피한 예단을 낳고 편견을 만든다. 사람들은 하늘이 어두워지고 기압계 수치가 떨어지면 비가 올 것이라 예상하고 우산을 챙긴다. 거리에서 성난 개가 달려들면 ‘미친개’로 범주화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친다. 인간은 단일한 사건을 유형화해 친숙한 범주에 넣은 후 그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나 잘못된 일반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눈과 귀는 편견으로 가려진다.

편견으로 가득찬 사람들은 “나는 편견이 없다”고 주장한다. 편견적 성격을 지닌 이들은 공포와 불안을 이용하는 정치 선동가들에게 가장 열렬히 응답한다. 책은 편견과 차별의 메커니즘을 가발리며 뿌리 깊은 혐오와 차별을 걷어내고 관용을 키울 방법을 알려준다. 840쪽. 3만6000원. /김현정 기자 hjk@

/김승호 기자